

◆ 북미

- 미국,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판매행위 제한규정 마련
- 미국 AIG, 2008년 1/4분기 78억 달러 적자 기록

◆ 유럽

- 유럽의 솔벤시II가 신용경색보다 큰 충격이 될 것이라 전망
- 스위스재보험(SRC), 금융위기로 인해 1/4분기 영업실적 악화

◆ 일본

- 대형 생보사들 4년 연속 계약자배당 지급
- 니혼생명 및 다이이치생명 이차 역마진 완전 해소

◆ 중국

- 중국 중소보험회사 주식시장 상장기회 얻나
- 중국, 갈길 먼 생명보험 예정이율 자율화

◆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

【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미국,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판매행위 제한규정 마련

-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개인 건강보험 판매에 있어 설계사의 전화나 방문을 통한 구매 유도행위와 병원, 약국 등의 장소에서의 선전을 금지하는 연방규칙이 지난 목요일 상정됨.

- 이 규칙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 수급자*들이 원치 않는 보험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위해 대면 방식의 보험상품 판매행위를 제한하기로 함.

* Medicare 수급자라 하더라도 Medicare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.

- 최근까지 Medicare 수급자와 보험감독자들은 몇몇 설계사들이 특정 건강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이용한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음.

-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관계자는 주차장, 병원 대기실 등에서 강압적인 판매행위가 이루어져왔으며 앞으로는 수급자들이 이러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.

- 의회 청문회 기간 동안 의원들은 이러한 그릇된 판매행위를 억제하도록 부시 행정부를 설득하였음.

- 제안된 규정의 몇 가지 조항은 보험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도 있음.

-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잠재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브로셔를 발송하고 브로셔의 수령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게 되는데 제안된 규칙 하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불가능하게 됨.

- 또한 보험 설계사들은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보험 등 다른 형태의 보험상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객과 미팅을 가져야 하지만 이것 또한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음.

(Associate Press, 5/9)

□ 미국 AIG, 2008년 1/4분기 78억 달러 적자 기록

- 미국 보험사 AIG는 모기지 투자와 관련한 자산상각으로 인해 1/4분기 78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함.
- AIG는 손실의 대부분이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, 신용위기,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밝힘.
- AIG는 또한 재물보험, 개인 자동차 보험, 산재보험(workers' compensation) 등에서 보험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주요 보험부문의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다고 강조함.
- 2008년 1/4분기 손해보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5.9% 감소한 1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기업보험, 모기지 보험, 개인보험 등에서 보험영업이익 감소와 순 투자이익의 감소에 기인함.
- 합산비율은 96.9%(손해율 70.4%)로 전년도 합산비율 87.5%(손해율 64.1%)에 비해 악화되었음.
- 기업보험의 영업이익은 9억 5천만 달러를 기록, 전년동기대비 48.3% 하락했고 이는 아틀랜타 토네이도 등으로 인해 보험영업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며, 기업보험의 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.9% 감소한 5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함.
- 개인보험의 경우 영업이익은 2007년 1/4 분기, 1억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7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손해율은 8.53%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AIG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125억 달러의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.
- 이 중 75억 달러의 자본금은 보통주 발행과 주식연계상품 발행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AIG는 밝힘.

(Insurance Journal, 5/8)

【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유럽의 솔벤시II가 신용경색보다 큰 충격이 될 것으로 전망

- 2008년 5월 7일 발표된 S&P의 보고서에 따르면,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유럽의 보험회사들은 자산가치 시가평가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혼란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임.
- S&P의 애널리스트인 Simon Marshall은 유럽에 본사를 둔 보험그룹의 영업이익은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손실이 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런 혼란은 자본시장에 가버운 충격으로 작용한 것일 뿐, 혼란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.
- 또한, 본 보고서에서는 솔벤시II가 유럽의 보험산업에 있어서 보험회사간의 인수합병을 가속화시키는 상황이라면, 이는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함.
- 이제까지 유럽의 솔벤시II는 그 방식이 단순하여 보험사의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해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으며, 2010년을 목표로 솔벤시II 프로젝트*를 진행하고 있음.

* 은행의 바젤II와 미국의 RBC의 장점을 받아들여 재무평가, 감독검사, 시장규율 강화의 3계층(Pillar) 구조를 갖춘.

- Marshall의 QIS 3(Quantity Impact Study)의 분석결과, 솔벤시II는 유럽보험회사의 주요 전략의 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며, 이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회사규모를 축소하거나 리스크 감소 방안, 자본 확충, 새로운 사업을 인수 및 철수,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.

(Insurance Times, 5/7)

□ 스위스재보험(SRC), 금융위기로 인해 1/4분기 영업실적 악화

- 세계적인 재보험사들 가운데 하나인 스위스재보험(SRC)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.
- SRC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 1/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53% 줄어든 6억2천만 스위스프랑(3억9천만 유로)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, 이는 시장 예측치인 8억9천만 스위스프랑을 크게 밑도는 것이라고 전함.
- 2007년 1/4분기 대비 이번 분기의 하락세는 금융시장의 대혼란으로 인한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힘.
- SRC는 1/4분기 구조화된 신용(Structured Credit)* 부분에서 8억2천만 프랑의 추가 손실에 대해 자구책을 찾아야만 함.

* 구조화된 신용(Structured Credit) : 금융시장의 비체계적 위험(non-system risk)을 개별 종목(주식이나 기타 금융자산)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상품을 지칭하며, 최근 미국 부동산시장의 위기는 이른바 '서브프라임 사태' 이후의 연쇄적인 금융위기를 야기함.

- SRC는 구조화 신용디폴트스왑(CDS)* 부문에서 시가 평가에 따라 890백만 스위스프랑의 추가 손실이 드러났으며 이것이 회계장부에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음.
- 이로 인해 할산비율에서는 94.8%에서 96.9%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.

* 신용파생상품의 하나로 신용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주는 계약을 말함.

- SRC의 발표에 따르면, 1/4분기 ROE는 8.5%로 나타났으며, 이는 2010년까지 10% 이상의 수익을 유지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, 장기 자기자본이익률(ROE)도 14%로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함.

(latribune fr, 5/7)

【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대형 생보사들 4년 연속 계약자배당 지급

- 일본에서 영업 중인 상위 4개 생명보험회사들이 2008년 3월말 개인보험에 대한 계약자 배당을 일제히 증액하기로 함.
- 다만, 대형 4사의 계약자배당 증가액은 주가 하락 등 자산운용시장 환경 악화에 의해 전년대비 약 70% 감소한 금액을 지급할 전망이다.
- 계약자 배당은 유배당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율이 계약 시에 미리 약속한 예정이율을 상회하였을 때 이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이며 배당을 늘린 만큼만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효과가 있음.
- 니혼(日本)생명보험은 4년 연속의 계약자 배당의 증액을 결정하였으며 유배당계약의 약 50%에 해당되는 680만 건을 대상으로 총액을 전년보다 60억 엔 늘림.
- 다이이치(第一)생명보험, 스미토모(住友)생명보험, 메이지야스다(明治安田)생명보험 등 대형 생보사와 중견 생보사인 후코쿠생명도 4년 연속으로 계약자 배당의 증액을 추진함.
- 계속적으로 배당금 지급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신규 계약 획득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배당 지급으로 안정적인 계약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임.
- 다만, 배당 증액은 다이이치(第一)생명보험을 제외해 전년도의 배당금액보다 적으며 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발생으로 주식시장이 악화되어 예년과 같은 운용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.
- 그러나, 니혼생명과 다이이치생명은 실제 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을 하회할 때 발생하는 역마진을 금년 3월말에 해소함에 따라 향후 계약자 배당의 지속적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
(FujiSankei Business I, 5/12)

□ 니혼생명 및 다이이치생명 이차 역마진 완전 해소

- 니혼(日本)생명보험은 2008년 3월말 계약자에게 미리 약속한 예정이율보다 실제 자산운용수익률이 못 미쳐 적자상태가 되는 역마진을 완전히 해소하였다고 발표함.
- 자산운용수지를 나타내는 이차손이 피크였던 2002년 3월말에는 적자규모가 3,400억 엔 정도였으나 2008년 3월말에는 수 백억엔의 흑자로 전환되었음.
- 다이이치(第一)생명보험도 역마진을 완전히 해소할 전망이어서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이후 대형 생보사들에 대한 경영 압박 요인이었던 역마진이 비로소 해소될 전망이다.
- 생명보험은 계약시에 미리 일정한 자산운용 수익을 예정이율로서 전망하여 그 만큼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보험료 산출 구조를 가지며 예정이율과 실제의 운용실적의 합산 수지를 2001년 3월말부터 공시하고 있음.
- 생명보험회사들은 버블 경제시대에 높은 예정이율의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가 그 후 주가 하락과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자산운용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수익률이 약속한 예정이율에 못 미쳐 대량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중소형 생보사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기도 했음.
- 이 때문에 각 생보사는 신계약의 예정이율을 인하하였고, 2006년의 일본 은행의 제로금리 정책 해제,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주가 또한 개선되고 있음.
- 특히, 니혼생명은 이차 역마진 적자를 메우기 위해 개인보험 책임준비금을 2007년 3월말부터 5년간 합계 1조 2000억 엔 증가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7년 3월말에는 적자규모가 약 300억 엔까지 축소되고, 2008년 3월말에는 완전히 해소되었음.
- 다이이치생명이 2008년 3월말에, 스미토모생명보험과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은 수년 내에 이차역마진을 완전히 해소할 전망이다.

(FujiSankei Business I, 5/86)

【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중국 중소보험회사 주식시장 상장기회 얻나

- 중국 보감위는 지난 4월 30일 소속부서인 발전개혁부와 심천증권거래소가 공동 주관한 '보험회사 상장업무 세미나' 자리에서 상장조건을 충족시키는 보험회사는 적당한 시기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.
- 보감위 대변인 웬리(袁力)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 열린 1/4분기 첫 기자회견에서도 "상당수 중소보험회사가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."며 "보감위는 처음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보험회사의 상장을 지지했다"고 전함.
- 게다가 4월 말에는 보감위의 상장지원 정책을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회사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함.
- 보감위는 최근 수년 동안 보험회사 개혁관련 업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개혁 추진 결과, 주요 국유보험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국내외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었다는 것임.
- 하지만 상장된 보험회사가 아직까지는 중국생명(中國人壽), 중국핑안(中國平安), 중국태평양보험(中國太保), 중국인민보험공사(中國人保) 등 대형 국유기업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임.
- 한편, 심천증권거래소 쑹리핑은 "중소 보험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은 굳이 한 시장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"면서 기업규모와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거래소, 창업기업거래소 등에 상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.

(상해증권보, 5/5)

□ 중국, 갈길 먼 생명보험 예정이율 자율화

- 지난해 하반기 한 달이 멀다 하고 금리가 인상될 때, 생명보험 예정이율 자율화가 시행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업계를 흥분시킨 적이 있었지만, 그 기대는 금년 초 보강위의 ‘자율화 계획 없음’이 발표되면서 조용히 가라앉게 되었음.
- 그러나, 최근 시중에는 금리인상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이율 자율화 설이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으며, 이는 헤이룽장(黑龍江) 보강국이 중국보강위에 ‘생명보험 예정이율 자율화 및 효과적 감독관리’라는 보고서 발간으로 인해 제기된 것임.
-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이율 자율화와 보험요율 시장화는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으로 경쟁위험, 가격결정위험, 관리감독위험 등이 그것임.
- 자율화가 시행되면 대형보험회사는 비교우위와 막대한 자금력으로 예정이율을 상향 조정하고 원가부담이 없는 저가상품으로 시장을 석권하면서 중소보험사의 시장진입 기회를 빼앗아 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임.
- 여기에 일부 신설 생보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낮춰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단기매출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.
- 또 보험회사가 변동예정이율 적용상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보험상품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, 이러한 리스크들은 잘 관리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, 만의 하나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보험회사의 신용위기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임.
- 이러한 위험요인 때문에 생명보험 예정이율 자율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보고서는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(제일재경일보, 5/9)

【 Financial Key Indicators 】

구분		07년말	08.4.25(금)	08.5.02(금)	08.5.09(금)	전주대비
금리 (%)	韓 국고채(3년)	5.74	4.94	4.90	5.22	0.32
	美 10년국채	4.03	3.87	3.86	3.77	-0.09
	英 10년국채	4.51	4.78	4.74	4.57	-0.17
	日 10년국채	1.51	1.61	1.65	1.56	-0.09
주가	韓 KOSPI	1,897.13	1,824.68	1,848.27	1,823.70	-1.33%
	韓 KOSDAQ	704.23	654.70	655.80	653.29	-0.38%
	美 DJIA	13,264.82	12,891.86	13,058.20	12,745.88	-2.39%
	美 Nasdaq	2,652.28	2,422.93	2,476.99	2,445.52	-1.27%
	英 FTSE	6,456.90	6,091.40	6,215.50	6,204.70	-0.17%
	獨 DAX	8,067.32	6,896.58	7,043.23	7,003.17	-0.57%
	佛 CAC40	5,614.08	4,978.21	5,069.71	4,960.56	-2.15%
	日 Nikkei225	15,307.78	13,863.47	14,049.26	13,655.34	-2.80%
	中 상해종합	5,261.56	3,557.74	3,693.11*	3,613.49	-2.16%
	대만 가권	8,506.28	8,947.83	8,963.63	8,792.39	-1.91%
환율	홍콩항셍	27,812.65	25,516.78	26,241.02	25,063.17	-4.49%
	원/달러	938.20	995.80	1,002.60	1,044.60	42.00
	원/100엔	833.33	952.20	960.90	1,004.38	43.48
	엔/달러	112.58	104.10	104.34	103.34	-1.00
	달러/유로	1.4722	1.5651	1.5476	1.5424	-0.0052
	위안/달러	7.3041	7.0100	6.9885	7.0048	0.0163

*: 2008.4.30 기준